

#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in Single-Parent Household Heads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조 교수 김정희\*\*

Dept. of Buddhist Sociology, Joong-Ang Sang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im, Jung-Hee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본인과 자녀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가구주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표본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에 부합한 1,631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을 통해 기술통계, 차이검증,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한부모 및 가족특성 요인, 건강요인,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 중 건강상태, 운동빈도, 우울감 해결 방법이 유의미했고, 경제자원 요인은 거주 형태, 월 가구소득이 유의미했다. 둘째,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의 건강상태, 경제자원 요인의 월 가구소득,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경험이 유의미했다. 한부모 및 가족특성 요인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건강요인과 경제자원 요인을 비롯해 차별경험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부모가족, 차별경험, 우울, 정신건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single-parent household heads and their children on their level of depression. As its sample, the study used data from 1,631 relevant respondents to the 2021 Single-Parent Family Status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version 25.0,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difference verification,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sis. First,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as single-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health factors, and economic resources, and differences in depression were analyzed accordingly. Among the health factors, health status, frequency of exercise, and methods of alleviating depression were significant. Regarding economic resources, housing typ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 factors. Second, factors influencing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depress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mong health factors,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 With regard to economic resources, monthly household incom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household heads,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children, and overal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significant. No significant variables were identified among

\*본 연구는 2024년 중앙승가대학교 봉은학술지원사업 중 학술논문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주저자, 교신저자: 김정희(nixyah@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1-7551-0943>

single-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 factors. Therefore, it was evident that health factors and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discrimination experiences,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increase depression in single-parent household heads. Based on these findings, corresponding relevant alternatives were suggested.

**Key words:** single-parent household, discrimination experience, depression, mental health

## I. 서론

한국의 산업화는 경제발전을 비롯해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 역시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에 공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확대가족을 미풍양속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현대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동성애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그 예이다. 그중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가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여성가족부 외, 2020). 이러한 상황들은 한부모가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llock, 1994).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부자가족을 의미한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혼인상태의 경우 이혼 81.6%, 사별 11.6%, 기타 6.8%로 이혼이 가장 많고, 가구 구성은 모자가구 53.4%, 부자가구 20.7%, 모자+기타가구 14.0%로 모자가구가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 2021).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년도 별 한부모 가구수를 조사했는데 2018년-2022년까지 1,539천, 1,529천, 1,533천, 1,510천, 1,494천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구성비율은 일반가구와 비교했을 때 7.7%, 7.5%, 7.3%, 7.0%, 6.9%로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23).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구성비가 7%에 가깝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부모가족은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화진, 2023a; 오성은, 김한성, 2020). 우울은 자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황정우 외, 2017),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차원의 연구가 최근 들어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국내에서 한부모가족 가구주 대상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연구 대부분은 남녀 차이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본 고에서는 대상이 한부모가족인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자원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특성을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과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고(고선강, 송혜림, 강은주, 2023), 본 연구의 핵심 변수가 우울인 것을 반영하여 건강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다차원적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 지도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였다(문화진a, 2023; 유수정, 2022; 장혜원, 2022; 오성은, 김한성, 2020; 남수연, 2017; 노영희, 김상인, 2016; 김정란, 김혜신, 2014). 건강요인에 있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건강상태와 우울 수준은 부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진, 2023a; 유수정, 2022; 남수연, 2017). 경제자원 요인은 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장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 대비 임시 및 일용직 집단인 경우, 비취업자인 경우, 주거형태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다(문화진, 2023a; 장혜원, 2022; 노영희, 김상인, 2016; 김정란, 김혜신, 2014). 이처럼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있어서 대부분 부정적 상황과 요인들이 우울을 증가시켰고, 유발 원인은 어느 특정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한부모가 된 이후에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부모가 지각하는 우울감은 자녀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청소년기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문화진, 2023b; 연은모, 최효식, 2021). 즉, 한부모가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모나 부의 우울감은 자녀에게도 심리적 위협을 비롯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건강한 자아로 성장하기에 앞서 우울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정신건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사회가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은 여전히 보인다. 짐작하듯이 한부모가족은 다른 집단보다 사회적 배제와 선입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김안나, 2007;

권재현, 2014). 이러한 차별경험은 양육, 경제, 건강 등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부모가족이 가구주 본인과 자녀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 삶의 일면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들이 사회 안팎에서 겪는 차별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과학에서의 차별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별은 편견으로부터 오는 구체적인 행동(김지영, 이윤석, 2022) 혹은 특정한 대상을 보는 부정적 행동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박헌식, 2008).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사회적 차별이라 본다(감정기, 임은애, 2005). 막스베버는 지배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게 자원이나 기회로부터 배제 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 차별을 설명하였다(Weber(1968), 김우균, 김승섭, 손인서, 2015 재인용). 따라서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 또는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Krieger, 2014).

차별의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경제적 상태, 고용조건, 한부모가족, 동성애 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부당한 차별경험을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일터,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5년, 2018년, 2021년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단편적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문제점 개선 및 거점기관으로서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을 설립하였다. 본 기관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거점기관 누리집, 2024).

차별경험이 어떤 변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데 비해, 한부모가족의 어떤 요인들이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이나와 이창배(2023)는 한부모가족 양육자의 차별피해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차별피해 경험은 한부모가족 양육자 본인이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일터,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분석결과 성별이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차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김지현(2021)의 연구에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영향, 임신전 부모님과 관계, 현재 부모님과 관계, 부모님의 정서적 지원으로 구성된 원가족과의 관계는 직장 및 공공기관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권리, 이성 및 주변인으로 인한 차별을 의미하는 관계, 성적·부정적 시선 등을 의미하는 규범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차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에 해당하진 않지만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김지영과 이윤석(2022)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혼 가구인 경우, 가구 수입이 낮을수록,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직장 및 일터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다. 거리나 동네에서는 중국계 한국인보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지역 출신인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한국어 실력이 어눌할수록,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다. 상점이나 음식점에서의 차별은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계 한국인보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출신지역인 경우, 연령이 낮고, 재혼인 경우, 교육연수가 많고, 한국어 실력이 어눌할수록, 참여모임이 많을수록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동네나 이웃 주민, 가족 등으로 구성된 사적 공간과 학교나 보육 시설의 공적 공간 혹은 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원가족과의 관계, 연령, 성별 등이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이 겪는 차별의 일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건강요인,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과 우울

인간에게 있어 차별경험은 신체와 심리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Pascoe & Smart, 2009), 양육과 경제활동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우울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Doherty, Susan & Needle, 1989).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전체 응답자의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수치에서 만 19세 이상 10.5%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차별경험과 우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한 연구는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모자가족, 결혼이주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과 2021년도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부모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우미정, 최미숙과 임효연(2022)의 연구에서 한부모가 주택임차 시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문화진(2023a)은 자녀의 차별경험과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녀가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차별경험의 주체가 일부 다르지만 본인과 자녀의 차별경험은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우울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자가족 가구주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웃관계, 자녀의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의 사회적 차별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란, 김혜신, 2014). 아울러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차별경험 유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정은, 2017). 4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김정석, 신유리와 노승현(2017)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즉, 지난 1년간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다양한 생활영역(결혼, 취업, 지역사회 생활 등)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는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의 주체는 다소 다르지만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들이 겪었던 사회적 차별경험들은 그들의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우울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원인에 대한 대안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표본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추세연구(trend study)로 2012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법정 조사이자 통계청 승인(승인번호 제154016)을 받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조사이다.

조사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되었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이고 무응답 데이터를 제외하고 본 연구 모형에 적합한 1,63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조작적 정의는 혼인상태가 이혼, 사별, 미혼, 별거 중 하나이고, 18세 이하의 아동을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본인과 자녀(들)로 구성된 모/부자 가족의 가구주를 의미한다.

### 2. 측정도구

#### 1) 우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pitzer, Kroenke & Williams(1999)에 의해 개발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한국판 표준화 과정을 거쳐 완성한 최홍석 외(2007)의 PHQ-9를 활용하였다. 질문은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로 각 항목별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일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식욕 저하 혹은 과식’,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껴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범주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여러 날 동안’ 2점, ‘일주일 이상’ 3점, ‘거의 매일’ 4점으로 총 9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홍석 외(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alpha$ =.85였고,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한 박승진 외(201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9이었다.

## 2) 차별경험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차별경험은 한부모가족 가구주 본인과 자녀의 입장에 따라 각각 설정되어있다. 질문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평소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본인 및 자녀의 입장에서 다음 각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이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입장은 ‘동네나 이웃주민(한부모라는 이유로 월세·전세 계약 거부, 한부모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학교나 보육시설(한부모라는 이유로 이용 불이익, 학부모 모임에서 배제 경험, 양부모가족이 당연한 행사 개최 등)’, ‘가족 및 친척(한부모라는 이유로 가족 의사결정에서 배제, 한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 ‘직장/일터(한부모라는 이유로 채용 불이익이나 휴가·휴직 거부, 동료로부터 따돌림 등)’, ‘공공기관(한부모라는 이유로 냉대, 공개된 공간에서 사생활 노출 등)’이었다. 자녀의 입장은 ‘동네나 이웃주민(한부모 자녀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한부모 자녀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학교나 보육시설(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이용 불이익, 또래 모임에서 배제 경험, 양부모가족이 당연한 행사 개최 등)’, ‘가족 및 친척(한부모 자녀라는 이유로 가족 의사결정에서 배제, 한부모 자녀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이다. 응답의 범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2점, ‘차별을 받은 편이다’ 3점, ‘심한 차별을 받았다’ 4점,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 5점으로 본인 차별경험 5문항, 자녀 차별경험 3문항으로 총 8문항이다. 문항들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본인 차별경험 Cronbach  $\alpha$ =.89, 자녀 차별경험 Cronbach  $\alpha$ =.88, 전체 차별경험 Cronbach  $\alpha$ =.93으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된 일반적 특성을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건강요인, 경제자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한부

모 및 가족 특성 요인은 연령, 한부모가족 사유, 가족 수이다. 한부모가족 사유는 미혼, 이혼, 사별, 별거이고, 가족 수는 가구 본인과 자녀를 합한 수이다. 건강요인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 본인이 지각하는 평소 건강상태이며, 운동빈도는 현재 걷기, 등산, 헬스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경제자원 요인은 거주형태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개인 근로 및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월 가구소득이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고, 집단 간 세부적 차이는 Tukey Hsb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 유의미한 관계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1,631명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20대 26명(1.6%), 30대 346명(21.2%), 40대 996명(61.1%), 50대 이상 263명(16.1%)이었다. 한부모가족 사유는 미혼 64명(3.9%), 이혼 1,340명(82.2%), 사별 199명(12.2%), 별거 28명(1.7%)이었으며, 가족 수는 2명 846명(51.9%), 3명 654명(40.1%), 4명 이상이 131명(8.0%)이었다. 건강요인에 해당하는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편 51명(3.1%), 나쁜편 369명(22.6%), 좋은편 1,031명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631)

구분	변수	변수값	빈도	백분율	평균(SD)
연령대		20대	26	1.6	43.97(5.84)
		30대	346	21.2	
		40대	996	61.1	
		50대 이상	263	16.1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한부모가족 사유	미혼	64	3.9	2.57(.65)
		이혼	1340	82.2	
		사별	199	12.2	
		별거	28	1.7	
가족 수		2명	846	51.9	2.57(.65)
		3명	654	40.1	
		4명 이상	131	8.0	

구분	변수	변수값	빈도	백분율	평균(SD)
건강요인	건강상태	매우 나쁜편	51	3.1	
		나쁜편	369	22.6	
		좋은편	1031	63.2	
		매우 좋은편	180	11.0	
	운동빈도	전혀 하지 않음	729	44.7	
		한달에 2-3회	225	13.8	
		일주일에 1-3회	654	34.6	
		일주일에 4회 이상	113	6.9	
	우울감 해결 방법	혼자서	566	34.7	
		친구 및 가족	798	48.9	
		음주	129	7.9	
		운동 및 취미활동 등	102	6.3	
경제자원 요인	거주형태	의료기관 및 상담	36	2.2	
		자가	284	17.4	
		전세	472	28.9	
		보증금 있는 월세	484	29.7	
	월 가구소득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391	24.0	
		100만 원 미만	70	4.3	
		100-200만 원 미만	615	37.7	
		200-300만 원 미만	642	39.4	
		300만 원 이상	304	18.6	

연령대, 가족 수는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 한 것임.

(63.2%), 매우 좋은편 180명(11.0%)이었다. 운동빈도는 전혀 하지않음 729명(44.7%), 한 달에 2-3회 225명(13.8%), 일주일에 1-3회 654명(34.6%), 일주일에 4회 이상 113명(6.9%)이었다. 우울감 해결 방법은 혼자서 566명(34.7%), 친구나 가족 798명(48.9%), 음주 129명(7.9%), 운동 등 취미활동 102명(6.3%), 의료기관 및 상담 36명(2.2%)이었다. 거주 형태는 자가 284명(17.4%), 전세 472명(28.9%), 보증금 있는 월세 484명(29.7%),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391명(24.0%)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70명(4.3%), 100-200만 원 미만 615명(37.7%), 200-300만 원 미만 642명(39.4%), 300만 원 이상 304명(18.6%)이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후 집단 간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Tukey Hsb의 사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건강상태, 운동빈도, 우울감 해결 방법, 거주 형태, 월 가구소득이었다.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편, 나쁜편, 좋은편 이상 순으로, 우울감 해결 방법은 의료기관 및 상담, 음주/혼자서, 운동 및 취미활동 등 순으로 우울이 더 높았다. 월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순으로 우울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울 전체 평균은 1.47점(SD=.49)이었다. 가구주 차별경험은 1.83점(SD=.64), 자녀 차별경험 1.83점(SD=.68), 전체 차별경험은 1.83점(SD=.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울과 가구주 차별경험( $r=.260, p<.001$ ), 자녀 차별경험( $r=.240, p<.001$ ), 전체 차별경험( $r=.263, p<.001$ ) 모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N=1,631)

변수	변수값	우울			
		M(SD)	F(T)	Tukey Hsb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연령대	20-30대	1,42(.48)	1.75	
		40대	1,48(.49)		
		50대 이상	1,48(.50)		
	한부모가족 사유	미혼	1,51(.67)	.75	
		이혼	1,46(.48)		
		사별	1,46(.52)		
		별거	1,58(.50)		
	가족 수	2명	1,48(.51)	1.52	
		3명	1,44(.46)		
4명 이상		1,50(.56)			
건강상태	매우 나쁜편	2,06(.67)	84.41***	a	
	나쁜편	1,71(.59)		b	
	좋은편	1,37(.41)		c	
	매우 좋은편	1,33(.33)		c	
건강요인	운동빈도	전혀 하지 않음	1,51(.55)	4.98**	
		한달에 2-3회	1,47(.48)		
		일주일에 1-3회	1,42(.40)		
		일주일에 4회 이상	1,40(.46)		
우울감 해결 방법	혼자서	1,55(.53)	16.93***	b	
	친구 및 가족	1,39(.43)		bc	
	음주	1,56(.56)		b	
	운동 및 취미활동 등	1,34(.38)		c	
경제자원 요인	거주형태	의료기관 및 상담	1,84(.69)	12.02***	a
		자가	1,34(.35)		c
		전세	1,47(.46)		b
		보증금 있는 월세	1,45(.54)		b
	월 가구 소득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1,57(.53)	19.11***	a
		100만 원 미만	1,75(.64)		a
		100-200만 원 미만	1,54(.57)		b
	200-300만 원 미만	1,41(.43)	c		
	300만 원 이상	1,38(.33)	c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주요변수 기술통계(N=1,631)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우울	1.47	.49	1.58	2.70
가구주 차별경험	1.83	.64	.52	-.218
자녀 차별경험	1.83	.68	.40	-.516
전체 차별경험	1.83	.63	.46	-.33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N=1,631)

	우울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경험
우울	1			
가구주 차별경험	.260***	1		
자녀 차별경험	.240***	.832***	1	
전체 차별경험	.263***	.974***	.935***	1

\* $p < .05$ , \*\* $p < .01$ , \*\*\* $p < .001$

### 3.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위한 공차 및 VIF 값을 확인한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본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체 차별경험 세 가지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1모형의 설명력은 19.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요인 중 건강상태( $\beta = -.288, p < .001$ ), 가구주 차별경험( $\beta = .245, p < .001$ ), 우울감 해결 방법( $\beta = -.095, p < .001$ ), 월 가구소득( $\beta = -.063, p < .05$ )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2모형의 설명력은 18.9%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변수는 건강상태( $\beta = -.294, p < .001$ ), 자녀 차별경험( $\beta = .233, p < .001$ ), 우울감 해결 방법( $\beta = -.097, p < .001$ ), 월 가구소득( $\beta = -.061, p < .05$ )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3모형의 설명력은 19.8%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변수 중 건강상태( $\beta = -.289, p < .001$ ), 전체 차별경험( $\beta = .251, p < .001$ ), 우울감 해결 방법( $\beta = -.096, p < .001$ ), 월 가구소득( $\beta = -.064, p < .05$ )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모든 모형에서 건강상태, 차별경험, 우울감 해결 방법, 월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차별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구 및 가족과 이야

기를 하거나 혹은 운동 및 취미활동 등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 있어 본인과 자녀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연구모형에 부합한 1,631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SPSS 25.0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이다. 우울과 유의미한 변수는 건강요인의 건강상태, 운동빈도, 우울감 해결 방법하였고, 경제자원 요인은 거주형태, 월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가족특성 요인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건강요인에 해당하는 건강상태는 좋은편 이상보다 나쁜편 이하, 운동빈도는 일주일에 4회 이상보다 한 달에 2-3회 이하, 우울감 해결 방법은 의료기관 및 상담, 음주/혼자서, 운동 및 취미활동 등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다. 한부모의 우울은 다양한 상황을 비롯해 이중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에 기인할 수 있는데(문화진, 2023a), 현재의 건강상태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은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이혼 후 자신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은 부적 관계였고

<표 5>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N=1,631)

변수	1모형		2모형		3모형		
	B	$\beta$	B	$\beta$	B	$\beta$	
(상수)	(1.977) <sup>***</sup>		(2.025) <sup>***</sup>		(1.960) <sup>***</sup>		
한부모 및 가족 특성 요인	연령	-.001	-.013	-.001	-.015	-.001	-.013
	한부모가족 사유	-.017	-.008	-.021	-.010	-.020	-.009
	가족 수	.002	.002	.002	.003	.003	.004
건강요인	건강상태	-.215 <sup>***</sup>	-.288	-.220 <sup>***</sup>	-.294	-.216 <sup>***</sup>	-.289
	운동빈도	-.007	-.027	-.006	-.022	-.006	-.023
	우울감 해결 방법	-.094 <sup>***</sup>	-.095	-.096 <sup>***</sup>	-.097	-.094 <sup>***</sup>	-.096
경제자원요인	거주형태	-.057	-.044	-.060	-.047	-.057	-.044
	월 가구소득	-.038 <sup>*</sup>	-.063	-.037 <sup>*</sup>	-.061	-.039 <sup>*</sup>	-.064
가구주 차별경험	.187 <sup>***</sup>	.245	-	-	-	-	
자녀 차별경험	-	-	.168 <sup>***</sup>	.233	-	-	
전체 차별경험	-	-	-	-	.195 <sup>***</sup>	.251	
R <sup>2</sup> (Adj. R <sup>2</sup> )	.195(.190)		.189(.185)		.198(.193)		
F(p)	43.601 <sup>***</sup>		42.008 <sup>***</sup>		44.362 <sup>***</sup>		

Dummy Variable = 1

1) 한부모가족 사유(D=이혼, 사별) 2) 우울감 해결 방법(D=친구 및 가족, 운동 및 취미활동 등) 3) 거주형태(D=자거)

\* $p < .05$ , \*\* $p < .01$ , \*\*\* $p < .001$

(이혜정, 송다영, 2019), 양부모에 비해 한부모의 건강 불평등 위험성이 높았다(강창현, 2016)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함께하였다. 경제자원 요인에 해당하는 거주형태는 보증금 없는 월세 및 무상 등,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자가 순으로, 월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았다.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거주형태와 월 가구소득은 이들의 가족자원에 해당하는데, 가족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은 우울 수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를 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문은영, 2011). 이러한 상황들은 우울 수준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의 소득과 우울감의 부적 영향력이 있었던 김정란과 김혜신(20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나,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소희와 김성희(2019)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자의 우울 수준이 가장 낮아 경제적 요인과 우울의 관계는 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

둘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건강요인의 건강상태, 우울감 해결 방법이었으며, 경제자원 요인은 월 가구소득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및 가족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변수로는 가구주 차별경험, 자녀 차별경험, 전제 차별경험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차별과 건강과의 연관성을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하고 있다. 차별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우리 몸은 이러한 과정에 코르티솔(cortisol)<sup>1)</sup>과다 분비로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김유균, 김승섭, 손인서, 2015).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음주나 흡연 등의 반복적 행태들은 신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Pascoe & Smart, 2009). 따라서 차별경험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신체건강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한부모, 모자가족,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장애인이 경험한 차별 역시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우미정 외, 2022; 김지현, 2021; 예정은, 2017; 김정석 외, 2017; 김정란, 김혜신, 2014).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 감소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차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 전국의 가족센터를 비롯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등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이 겪는 사회에서의 부당한 일이나 차별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교육의 대상 확대와 내용의 개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직전 등을 이용해 1시간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과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부모가족의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위한 자조모임 및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우울감 해결을 위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거나 운동 등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여러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이미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는 자조모임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경감시키고,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활동은 취미, 동아리, 여가·문화 활동, 캠핑, 제빵, 취업 및 창업정보 제공 등으로 대부분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모집 인원도 5-10가정 안팎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모집 단위가 작은 편이며, 진행 기관에도 선택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기관 자체적인 운동프로그램 개설과 지역사회 내 협력병원을 통한 검진 서비스가 제공되어 한부모가족에게 취약한 신체 및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가계 경제자원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이중 역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케어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한부모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 경제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부양 서비스, 가사 서비스,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 직장에서의 역할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에 대한 탄력적인 휴일 및 조기 퇴근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기업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가구주와 자녀가 경험한 차별경험이 가구주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이 한부모가족 가구주 본인 및 자녀의 입장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 자녀가 직접 경험하였다는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1) 코르티솔(cortisol)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사 및 심혈관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공급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코르티솔 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혈액순환 장애로 사망할 수도 있다(Vander's 인체생리학, 2017).

향후 자녀가 직접 경험한 차별요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정기, 임은애(2005). 장애인차별 개념의 확장을 위한 양가적 장애인차별 척도개발. *사회복지연구*, 26, 5-34. UCI : I410-ECN-0102-2009-330-001585854
- 2) 강창현(2016). 한부모 여성의 건강 불평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0(4), 297-319. DOI : 10.24210/kapm.2016.30.4.011
- 3)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누리집(2024). <https://www.gghanbumo.or.kr/>에서 2024.05. 인출
- 4) 고신강, 송혜림, 강은주(2023).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1), 25-39. DOI : 10.22626/jkfrma.2023.27.1.003
- 5) 권재현(2014).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시설미혼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안나(2014). 가구 유형별 빈곤과 배제의 특성 연구. *가족과 문화*, 26(1), 237-265. DOI : 10.21478/family.26.1.201403.009
- 7) 김유균, 김승섭, 손인서(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 수준 간의 연관성 :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DOI : 10.15709/hswr.2015.35.3.421
- 8) 김정란, 김혜신(2014).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 : 가구주의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143-160. UCI : I410-ECN-0102-2015-300-000357477
- 9) 김정석, 신유리, 노승현(2017).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영향 요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4, 77-96. DOI : 10.17939/hushss.2017.54.005
- 10) 김지영, 이윤석(202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차별경험. *지역과 세계*, 46(3), 5-33. DOI : 10.33071/ssrich.46.3.202208.5
- 11) 김지현(2021). 미혼모의 원가족과의 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양육효능감과 차별경험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5(3), 447-463. UCI : I410-ECN-0102-2022-300-000740024
- 12) 남수연(2017). 사회적자본이 한부모가정 여성의 우울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양부모가정 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노영희, 김상인(2016). 한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 고용지위,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한부모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2), 167-185. DOI : 10.21479/kaft.2016.24.2.167
- 14)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15) 문화진(2023a). 한부모의 우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7(3), 61-81. DOI : 10.22718/kga.2023.7.3.003
- 16) 문화진(2023b). 한부모가족의 특성, 한부모의 어려움과 우울감이 학령기 자녀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4(1), 651-661. DOI : 10.22143/HSS21.14.1.46
- 17)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2010). 한글판 우울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불안학회지*, 6(2), 119-124. UCI : G704-SER000010590.2010.6.2.006
- 18) 박현식(2008).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이 사기(morale)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27-139.
- 19) 여성가족부(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0)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2020).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 21) 연은모, 최효식(2021).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이혼 가정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예측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123-135. DOI : 10.22251/jlcci.2021.21.8.123
- 22) 예정은(2017).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오성은, 김한성(2020). 사회적 배제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1), 207-226. DOI : 10.16881/jss.2020.01.31.1.207
- 24) 우미정, 최미숙, 임효연(2022). 한부모의 주택임차 시 차별 경험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2), 552-563. DOI : 10.5392/JKCA.2022.22.12.552
- 25) 유수정(2022). 양육 어려움이 여성 한부모 임금근로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이소희, 김성희(2019). 직장 남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3(4), 75-95. DOI : 10.22626/jkfrma.2019.23.4.005
- 27) 이이나, 이창배(2023). 한부모가족 양육자의 차별 피해 경험의 영향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2), 221-246.
- 28) 이해정, 송다영(2019).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화와 영향 요인 :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6, 43-65. DOI : 10.16975/kjfs.w.

- 2019.65.002
- 29) 장혜원(2022). 한부모의 주거환경이 초등학교 자녀양육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최홍석, 최지호, 박기호, 주규진, 가혁, 고희정, 김성열 (2007). 주요우울장애의 선별 도구로서 한국판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의 표준화. 가정의학회지, 28(2), 114-119.
- 31) 통계청(2023).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 32) 황정우, 이강욱, 김정유, 이동하, 김두명(2017). 동거 및 독거노인의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32-62. DOI : 10.24301/MHSW.2017.03.45.1.36
- 33) Bullock, S.(1994). Women and Work: Zed Books Ltd.
- 34) Doherty, W. J., Susan, S., & Needle, R.(1989).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Pane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72-85. DOI : 10.1177/019251389010001004
- 35) Krieger, N.(2014). Discrimination and health inequ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4(4), 643-710. DOI : 10.2190/HS.44.4.b
- 36) Pascoe, E. A., & Smart Richman, L.(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DOI : 10.1037/a0016059
- 37) Spitzer, R.L., Kroenke, K., & Williams, J.B.(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 the PHQ primary care study. 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JAMA, 282(18), 1737-44. DOI : 10.1001/jama.282.18.1737

- 투 고 일 : 2024년 05월 19일
- 심 사 일 : 2024년 07월 03일
- 게재 확정일 : 2024년 08월 05일